

류현진, 마침내 '이달의 투수상'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침내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했다.

4월 '한겨레'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전날 5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 주인공으로 류현진을 선정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류현진이 홈런을 한 개도 맞지 않았고 상대 타자들에게 안타 28개, 볼넷 3개만 허용했다고 소개했다. 월간 5승 이상, 탈삼진 35개 이상, 평균자책점 0.60 이하로 던진 다저스의 4번째 투수라는 내용도 곁들였다.

류현진에게 5월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최고의 달이었다. 5월 들어 6경기에 나와 45%이닝을 던져 단 3실점만 기록했다. 5승무패, 평균자책점 0.59으로 내셔널리그 월간 최다승리와 월간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다. 6경기 모두 6이닝 이상 던진 켈리타스타트였다.

류현진은 지난 2일 엠엘비(MLB)닷컴이 선정한 '5월의 팀'에서 메이저리그 통틀어 선발투수부문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돼 '이달의 투수' 수상을 예고한 바 있다.

류현진은 이로써 박찬호(1998년 7월)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번째 이달의 투수의 주인공이 됐다. 박찬호는 당시 6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1.05를 기록했다. 아시아인으로는 박찬호, 노모 히데오(1995년 6월, 1996년 9월), 이라부 히데키(1998년 5월, 1999년 7월), 다나카 마사히로(2014년 5월) 등에 이어 다섯번째다.

한국인 메이저리그의 맏형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던 2008년 9월과 텍사스에서 뛰던 2015년 9월 두차례 월간 최고의 활약을 펼쳐 '이달의 선수' 영예를 안았다.

추신수,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리그 통산 200호 홈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마침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개인통산 200번째 홈런을 터뜨렸다.

5월 '한겨레'에 따르면 추신수는 전날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추신수는 0-4로 뒤지던 1회말 상대 선발투수 딜런 번디의 2구째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425피트(약 129.5m)짜리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의 시즌 11호, 통산 200호 홈런이다.

메이저리그에서 200홈런 고지를 밟은 선수는 추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다. 아시아 선수 출신 2위와 3위는 일본의 마쓰이 히데키(통산 175개)와 스즈키 이치로(통산 117개)로 둘 다 은퇴했다.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이듬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이적했다. 2006년 7월29일 친정팀 시애틀을 상대로 메이저리그 개인 첫 홈런을 터뜨린 뒤 만 12년10개월, 날짜로는 4,694일 만에 추신수는 200홈런 금자탑을 쌓았다.

추신수는 지난해 5월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날려 마쓰이를 넘어 메이저리그 역대 아시아 타자 최다홈런 신기록(176개)을 세웠다. 이후에도 쉽없이 홈런포를 가동하며 1년 만에 200홈런 고지를 점령했다.



추신수는 빅리거로서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진 클리블랜드에서 홈런 83개를 쳤다. 1년을 났던 신시내티 레즈에서 21개를 더했고 자유계약선수(FA)로 7년간 1억3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계약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96개를 터뜨렸다.

200개의 홈런 중 1회 선두타자 홈런이 30개, 동점 홈런이 19개, 팀에 리드를 안긴 홈런이 69개다. 극적인 끝내기 홈런도 3개 있다. 솔로 홈런이 131개로 가장 많았고, 투런홈런 46개, 3점 홈런 19개였으며 짜릿한 만루홈런도 4방이나 날렸다.

추신수는 뛰어난 선구안으로 볼넷을 많이 고른 타자이지만 초구부터 적극성을 보이는 타자이기도 하다. 홈런 200개 중 초구(39개)와 2구(51개)에 80개(40%)나 터뜨렸다. 3구(48개) 안에 친 홈런은 전체 200홈런의 64%인 128개에 이른다.

구장별로는 클리블랜드의 홈인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가장 많은 홈런 46개를 터뜨렸다. 하지만 현재 홈 구장인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43개를 쳐 올해 안에 프로그레시브필드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투수별로는 브론슨 아로요(은퇴)에게 가장 많은 홈런 4개를 빼앗겼고,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 저스틴 벨랜더(휴스턴 애스트로스) 등 5명에게 홈런 3개씩을 날렸다.

팀별로는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가장 많은 18개의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 시애틀(17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15개) 순이다.

정순배 니트패션 여름맞이 Big Sale

40년 경력
니트 정장 맞춤 전문점

“오래된 니트”
최신형으로 수선 해드립니다

- ◆ 최고급 이태리 실(원사)로만 사용함
- ◆ 여성니트 정장맞춤 전문점
- ◆ 결혼, 예단, 파티복, 드레스



30대~50대 분들을 위한 캐주얼 스타일 니트도 맞추어 드립니다

T. 714.539.1450

8942 Garden Grove Blvd. #103, Garden Grove, CA 92844

2QUICK 714.745.4164
한국택배 (3일내 배송)